

가가번과 마에다 가문의 문화정책

현재 이시카와현으로 알려진 지역은 과거 가가번의 일부였습니다. 에도 시대(1603~1867)에는 도쿠가와 쇼군 가문의 지배 아래 약 250 개의 번에서 각자의 자치가 허용되었습니다. 가가번은 1583년부터 마에다 가문이 다스렸는데, 이는 에도 시대가 끝나고 번이 폐지된 1871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가가의 전통공예 육성에 힘을 쏟은 마에다 가문의 유산은 현재도 이시카와의 문화로서 맥맥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가가번의 영지는 굉장히 넓었으며, 농업 생산 또한 매우 풍요로운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번의 재력은 쌀을 중심으로 한 농작물 생산량에 의해 결정되었기 때문에 마에다 가문은 총수입 면에서 쇼군 가문에 이어 두 번째로 부유한 다이묘 가문이었습니다.

에도 시대 이전의 일본은 수백 년 동안 각 지역의 무장들이 독자적으로 병력을 모으고 군대를 조직하며 전쟁에 몰두하던 시대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16세기 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등장하여 천하통일을 이루면서 에도(현재의 도쿄)에 막부를 세웠습니다. 도쿠가와 가문은 재력이 증가하면 병사의 동원과 장비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에다 가문처럼 부유한 다이묘가 반란을 꾀하고 자금을 반란 준비에 투입한다면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에다 가문 역시 그들의 부유함이 쇼군에게 정적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이에 마에다 가문은 혁명한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풍부한 자산을 군사와 무관한 일본 전통 가면극인 노, 장식미술, 다도와 같은 문화적 분야에 투입한 것입니다. 이 방침은 성공을 거두어 마에다 가문은 쇼군 가문에게 신임을 얻고 막부 내에서 높은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 가나자와는 에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중심도시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문화적 영향력을 높이는 것은 막부의 지배를 인정하면서도 번의 독립성을 나타낼 수 있는 평화적인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마에다 가문의 문화정책은 크게 ‘수집’과 ‘육성’ 2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미술품 수집은 번주의 위신을 높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당시 무사들에게 일반적인 일이었지만, 부유했던 마에다 가문은 다른 다이묘들을 능가하는 자금을 미술품 수집에 쏟아부어 일본 각지의 많은 명화가 마에다 가문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에다 가문은 단순히 수집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마에다 가문은 지역예술과 공예의 진흥을 번 경영의 기본으로 삼으며, 전국에서 우수한 장인들을 초청해 그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주거공간 등을 제공했습니다. 가가유전을 비롯해 이시카와를 대표하는 많은 공예품들은 마에다 가문의 초청으로 교토와 에도에서 가나자와로 이주한 장인들에 의해 확립된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이시카와 공예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가나자와 성 아래에 있던 무구 수리소를 다양한 공예 공방인 ‘가가번 세공소’로 전환한 일이었습니다. 역대 번주의 자금 지원을 받은 장인들은 기술을 연마하고 후계자를 양성했으며, 공예분야의 경계를 넘어 공동작업에 참여하여 수많은 명작을 만들어냈습니다. 제5대 번주 마에다 쓰나노리(1643~1724)는 전국에서 다양한 분야의 공예 견본을

수집하여 정리하고 분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것이 ‘핫코히쇼’인데, 가가번 세공소 장인들은 이를 참고하여 배우고 영감을 얻었습니다. 칠기, 금속공예, 목공예 등 오늘날 이시카와 전통공예의 토대가 된 많은 중요한 기술을 탄생시킨 곳이 바로 이 혁신적인 가가번 세공소였습니다.